

# 후보 이력서



	성명	한글	오흥운	서명		성별	남	
		한자	吳興雲	영문	Oh, Heungun			
		생년월일	1964.06.17		작성일	2020.12.07		
직장명	경기대학교		부서명	도시교통공학과		직위	교수	
학력	기간		학교, 학과 및 전공				학위	
	1997.1 ~ 2000.5		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 토목공학과 교통공학전공				박사 졸업	
	1983.3 ~ 1987.2		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공학학사				학사 졸업	
주요경력	기간		직장, 부서 및 직위					
	2009~현재		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					
	2019~2021		한국도로학회 홍보부회장					
	2017~2019		한국도로학회 감사					
	2015~2017		한국도로학회 총무(재무)이사					
	2013~2015		한국도로학회 총무이사					
	2011~2013		한국도로학회 논문편집위원장					
	2005~2009		한국도로학회 학회지편집위원, 도로설계분과위원, 교통안전분과위원					
	2017~ 2019		대한교통학회 행정부회장					
	1991~2009		한국도로공사 (건설2처, 도로처(시설개발부), 신사업단, 조사처, 도로교통연구원)					
	1997~ 현재		국제도로연맹 (IRF)회원, REAAA (동아시아도로연맹)한국지부 이사					
	2014~ 2018		한국도로기술사회 이사					
	2020~ 현재		한국도로시설안전협회 이사					
자격·포상	년월일	종 류			시행/발행처			
	2017.03.14	논문상			한국도로학회			
	2013.03.08	학술상			한국도로학회			
	2011.07.07	국토해양부장관 표창			국토해양부			
	2004.07.07	건설교통부장관 표창			건설교통부			
	2006.09.11	(자격)도로 및 공항기술사			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			
1986.12.01	(자격) 토목기사			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				

## 주요 연구업적 요약

학위 논문	논문						기타					합계	비고
	정기 학술지 논문			학술발표 논문			소계	저서	특허 (출원)	연구 보고 서	소계		
	국제	국내	기타	국제	국내								
4	12	40		11	13	80	3		36	39	119		

# 학회 운영 계획서



후 보 성 명	소 속
오흥운	경기대학교

첨부와 같습니다

# 15대 차기회장 후보 (오흥운)가 제안하는 한국도로학회 운영계획

## 후보의 도로 분야 경력

후보는 '91년부터 현재까지 31년에 걸쳐 도로분야에서 일을 한 도로설계 전문가입니다. 한국도로공사의 건설2처, 도로처, 조사처, 도로교통연구원에서 근무를 하며 도로설계와 사업관리, 연구개발을 하였습니다. '09년 이후 학교에서는 도로분야 전반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.

도로 및 공항기술사입니다. 국제도로연맹 (IRF) 장학생이었고 평생회원입니다. 아시아도로연맹(REAAA)회원이기도 합니다

한국도로학회에는 박사학위 취득 이후 '05년부터 17년간 학회지 편집위원, 논문집 편집위원장, 재무이사, 총무이사, 감사, 홍보부회장의 봉사를 했습니다.

## 후보의 학회운영계획 :

우리시대는 코로나사태이후 극단적으로 개인화되는 나노사회로 향하고 있습니다. 나노사회는 디지털 사회이고, 단위 지식의 사회이고, 개인의 사회라합니다. 나노사회에서는 개개인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합니다.

### **도로(기술)를 다양하게 이해시키고 전파한다**

#### **(Diverse Narration of Highway & Engineering)**

- ※ 광의적으로 누구나 이해하고 여럿에 인기 있는 도로(기술): 도로의 문화, 혜택 및 기술에 대해 다중적인 관점으로 줄거리를 만들어 세상에 (여러곳)에 전달한다는 의미
- ※ 협의적으로 도로 및 도로기술의 지식을 전파하는 의미
- ※ Narration은 어떤 사물이나 사실, 현상에 대하여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하는 말이나 글을 말한다.

개인은 디지털식 지식과 판단을 가진 개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. 개개인이 좋아하면 어느 날 갑자기 떡상이 되는 “오징어게임”과 같은 운명의 세상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. 평론가들은 오징어게임의 성공요인은 전세계 각국의 문화에 침투할 수 있는 **다중적인 시점 (플레이어시점, 구경꾼시점, 정의추구의 시점)의 복합적인 보유**라 합니다. 오징어게임의 플롯(plot)은 시청자를 플레이어의 위치에서 괴롭히기도 하지만, 구경꾼의 위치에서 유희적으로 즐기게 하고, 정의 추구자의 위치에서 책임감 있게 정의와 진실에 대한 열망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.

우리 도로분야에는 **다중적 관점이 필요하다**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는 **도로(기술)를 다양하게 이해시키고 전파한다 (Diverse Narration of Highway Engineering, 다중적인 관점의 도로 분야 줄거리를 만들어 세상의 여러곳에 전달) 운영모토를 제안**하여 추진하겠습니다.

객관적 표현의 스토리텔링을 넘어서 우리만의 방식으로 다중적인 줄거리를 가지고 (외부의, 국민들의) 여러 계층에 도로와 도로기술을 널리 알리겠다는 의미입니다.

학회와 학회외부에서 도로 및 도로기술(자)의 **전문성, 생활성, 책임성, 참여성**을 더 확장하고 더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. **전문활동의 강화, 홍보활동강화, 위원회활동 강화, 지회활동강화**를 통해 학회와 학회외부를 연결하겠습니다.

**전문활동의 강화**를 위해서 전문화를 더 추구하겠습니다. 도로기술의 이해당사자는 우리 엔지니어, 관공서 공무원(연구원), 일반 전공분야 신규전문 인력이 대상일 것입니다. **우리 학회와 관공서가 공동주최하는 도로기술을** 추구하겠습니다. 여기서 우리학회 회원들이 학회외부에 전문능력을 전파하도록 체계를 만들겠습니다.

**홍보의 활성화**를 위해서는 도로 및 도로기술이 우리학회 회원과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분야에 파고드는 것을 추구하겠습니다. 홍보의 이해당사자는 인문사회학자, 우리 엔지니어 (연구자), 일반국민, 미디어 관계자들일 것입니다. 우리학회에 관심이 많은 인재들을 추가 영입할 것입니다. **우리학회 방송국이 생길 것입니다**

**위원회활동 강화**를 위해서는 우리학회 회원과 우리나라 국민의 책임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. 위원회의 이해당사자는 위원회 회원 (엔지니어, 연구자)들일 것입니다. 우리학회 위원회는 일반국민에도 알림이 필요합니다. 위원회는 각 위원회별로 보도

자료를 내고 책임성 있게 넓은 활동할 것입니다. 소위원회도 활성화가 필요합니다. 청년 소위원회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. 각 위원회가 우리학회입니다.

여기서 우리학회의 위원회는 외부에 책임있는 활동을 하게 지원할 것입니다.

지회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. 우리학회 회원의 참여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. 지회의 이해당사자는 우리학회 지방과 공/사조직의 회원 (엔지니어, 연구자), 특정 지역, 조직의 구성원들일 것입니다. 지회활동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. 자율적 1인지회의 활동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. 경상북도, 서울시,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에도 지회장이 생깁니다. 여기서 우리지회는 각지역/기관/국민에 도로에 대한 지식을 전파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.

우리는 학회와 도로분야 이해당사자(Stake Holders)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.

- 무엇보다 중요하게 도로분야 엔지니어, 연구자, 관공서 종사자, 특정 지방과 조직의 우리학회 회원들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.

- 또한 신규 진입중인 도로전문가, 도로에 관심이 있는 인문사회학자, 도로를 매일 사용하는 일반국민, 도로를 보도하는 미디어 관계자들에 관심을 가질 시기입니다.

“도로(기술)를 다양하게 이해시키고 전파”

함을 추진하며

전문성, 생활성, 책임성, 참여성을 더 확장시키겠습니다.

결국은 우리학회가 총량적으로 더 커지고 더 단단해져서

철도관련 학회, 항공관련 학회등과

더 큰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.

실천과 의견수렴을 위해 OPEN ENDED Discussion (개방형 토론) 개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.

※ Open ENDED Discussion (혹은 Open ENDED Questions)은

현재 공학인증설계에서 중요한 역량강화의 방법론임

한국도로학회에 지속적인 응원을 부탁드립니다~